

氣象業務의 現代化推進

中央氣象台 篇

中央氣象台는 82년이 우리나라의 100여년 氣象史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 발족되어 30여년간 기상업무를 담당하던 『中央觀象台』라는 명칭을 82년 1월 1일을 기하여 『中央氣象台』로 개칭하여 1월 5일 현판식을 가졌었다. 아울러 지역기상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부산, 광주, 강릉지대의 명칭도 각각 부산, 광주, 강릉 지방기상대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82년은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최근 10여년간 대단히 침체되었던 기상업무를 제 5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기상업무의 현대화를 위해 질적, 양적으로 향상 발전되도록 의욕적으로 추진 노력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상레이더를 비롯하여 해상 고층 등의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며, 예보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의 강화, 기상장비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계획이다. 특히 기상관측망의 확충과 시급한 장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氣象觀測網의 擴充

우리나라 기상관측망의 분포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내륙산간지방이나 도서지방에는 관측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취약지역의 기상관측을 위해 내륙산간이며 최근 댐 건설로 인해 기후변화가 큰 안동에 측후소를 설치하여 지역

기상을 지원토록하고, 제주와 완도간의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기상지원을 위하여 완도측후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착수한 도서지방의 有人燈台와 漁撈指導船등에 위탁한 32개소의 기상관측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개소에 관측기기를 설치하여 정밀한 관측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년차적으로 이를 확대할 것이다. 지난해 완료된 제주국제공항 확충에 따라 항공기상관측시설을 년초에 조속히 이전하여 항공기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금년에도 노후된 관측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風向風速計等 12種 (48台)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여 시급한 곳에 설치해서 관측업무를 원활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각 지방에서 관측된 자료는 氣象電報式에 의하여 숫자로 작성하여, 국제간에 교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氣象電報式은 1949년에 제정되어 사용하여 왔으나 이용상 많은 결함이 지적되었다. 世界氣象機構(W. M. O)는 이러한 결함을 개선하고 기상자료의 電送과 처리에 전자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氣象電報式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82년 1월 1일을 기하여 새로운 國際電報式에 의하여 기상자료를 교환하도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기상예보 체제의 강화

기상업무는 신속한 자료교환으로 정확한 예보를 적시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제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서울과 동경간 전용회선의 通信速度를 현재의 50보드에서 75보드로 높여 1분간 자료교환을 400자에서 600자로 늘여 보다 많은 자료를 단시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텔레타이프, 팩시밀 등 통신장비 9종(38대)을 도입하여 시급한 부분의 노후시설과 교체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시작한 일기도 분석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일 8회에 걸쳐 세밀히 분석할 것이며, 한편 기상위성과 레이다자료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일기예보가 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또한 80년부터 시작된 颱風業務實驗(TOPEX: Typhoon Operational Experiment)을위해 금년에는 3회에 걸쳐 기획 및 운영에 관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실무실험에도 요원을 파견하여 태풍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간의 공동실험에 적극협력할 계획이다.

4. 기상연구 및 자료발간

기상연구소가 발족된지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간 짧은 역사와 시설의 미비, 장비 및 인력부족 등의 여건 속에서도 기상예보기술 개발과 지역기상특성조사등 조사연구 활동을 착실히 수행하여 왔다. 금년에도 계획은 남해안의 복잡한 수륙분포로 인한 강풍 및 돌풍과 안개 등 지역기상특성을 조사분석하여 남해상의 안전항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예보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상위성과 레이다자료 활용의 극대화 방안을 연구하고, 중국대륙으로부터 버멀구 飛來와 氣圧系 이동과의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기상재해를 사후분석하여 앞으로의 재해 輕減을 위하여 금년부터 매년 기상재해년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81년도의 각종 재해를 조사하고 당시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81년도 재해년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되었던 1951년부터 1980년까지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종합 정리한 기상30년보를 발간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5. 교육훈련 강화 및 처우개선

제 5 차 5 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상기술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강화가 대단히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전기상기술을 습득하고 기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업무를 기상연구소가 전담토록하여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훈련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해외연수도 적극 강화하여 나아갈 것이다. 또한 고급인력 확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기상요원에게 부여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직 신설, 수당지급 등의 처우개선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6. 국제협력

기상사업은 국제간의 협력사업으로 국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W. M. O) 주관하에 각종 회의가 매년各地에서 개최되어 최신의 기술정보 및 연구결과를 토의하며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금년에 중앙기상대에서 참석예정인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제 8 차 基本組織專門委員會 ((스위스 제네바)
- ▲제 8 차 氣候 및 應用氣象委員會 (미국 와싱턴)
- ▲제 8 차 航空氣象委員會 (캐나다 몬트리얼)
- ▲제 8 차 大氣科學委員會 (호주 멜보른)
- ▲제 15 차 颱風委員會 (미정)

7. 법령정비

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61년에 氣象業務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제정후 일체 정비를 못하여 다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년에는 기상업무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정비하여 기상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